

Analyst 김재임 jamie@hanafn.com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RA 송종원 1223sjw@hanafn.com

데이터 인프라 소프트웨어에게 AI는 위협이 아니라 성장 동력

스노우플레이크 (SNOW.US): AI 제품의 매출 기여 시작, 큰 폭의 Beat & Raise 이유

1QFY27 Review: 매출 성장 가속화 뚜렷, 가이드언스도 예상보다 빠르게 상향 조정

- FY27년 1분기 실적은 스노우플레이크에게 AI가 위협이 아니라 강력한 성장 동력임을 입증. 제품 매출은 13.3억 달러로 34% YoY 성장, 가이드언스를 7ppt 상회했으며 이는 기존 상회폭 추이를 크게 뛰어넘는 서프라이즈
- 조정 OPM 12%(컨센 10%), 조정 EPS는 0.39 달러로 컨센을 22% 상회. FY27년 제품 매출 성장 가이드언스를 기존 27%에서 31%로 4ppt 상향조정. 통상적으로 1분기에 올린 조정폭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
- 고무적인 점은 1분기 Beat, 가이드언스 상향 조정의 가장 큰 요인이 AI 제품의 매출 기여. AI 코딩 에이전트 CoCo(Cortex Code)가 2월 초 GA 이후 1개 분기 만에 7,100개 계정 수를 기록했고, CoCo 사용 고객군의 기존 플랫폼 사용량 증가로 이어지면서 플라이휠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데이터 플랫폼 사업자는 구조적 AI 수혜자

- 2분기 가이드언스는 제품 매출 성장 30% (컨센 26%), 조정 OPM 12.5% (컨센 11.7%) 제시. 스노우플레이크는 AWS와 5년 60억 달러 규모의 신규 계약을 체결했으며 Graviton 컴퓨팅 및 AI 서비스 활용과 공동 GTM 투자가 포함. AWS 플랫폼 내의 누적 매출 70억 달러 돌파는 스노우플레이크 플랫폼 위에서 실행되는 데이터 워크로드에 대한 수요 증가를 입증하는 수지로 판단됨
- 소프트웨어 각 세부 분야별로 AI 영향이 다르며, 데이터 플랫폼의 경우 AI가 선순환 효과를 만드는 수혜자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음. 보수적인 가이드언스 추정 원칙을 따르면서도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가이드언스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구조적 AI 효과를 입증하는 것으로 판단됨
- 향후 CoCo 채택 확대, Snowflake Intelligence 상용화 진전에 따라 매 분기 실적에서 Beat & Raise 패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스노우플레이크가 AI 수혜주임을 더욱 확고하게 입증해 나갈 것으로 판단

몽고DB(MDB.US): AI 에이전트 메모리 플랫폼으로 전환

- MDB는 1분기 실적과 2분기 가이드언스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 실적 발표 직후 시간외거래 초반 주가가 급등했으나 컨콜에서 CEO가 “현재 분기 Atlas 매출 가이드언스 대비 큰 폭의 서프라이즈는 기대하지 말라”는 코멘트 이후 초반 상승분 반납
- 계절성이 큰 사업인 EA 사업도 2분기 가이드언스를 +20%로 강력한 성장을 전망했으나 FY27년 연간 성장은 ‘mid-single-digit’ 수준을 전망, 하반기 EA 성장 둔화를 시사한 점도 초반 과열 분위기를 식혔던 요인
- 실적 발표 전날 SNOW 호실적 달성으로 MDB 주가가 급등하며 실적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된 측면도 있음
- 이번 실적을 통해서 확인된 점은 소프트웨어 섹터 세부 분야 중에서 데이터 인프라 서브섹터는 AI가 위협이 아니라 중요한 성장 동력. MDB는 EA 사업 영향으로 기저/역기저 효과 영향이 크고 계절성이 높으나 Atlas 확대에 따라 예측 가능성이 크게 개선

주목할 코멘트

- 에이전트 워크로드는 초기 단계이나, 프로덕션 배포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 금융/헬스케어 기업에서 확신을 얻고 있음
- MDB의 유연한 스키마와 LLM의 언어 구조가 일치한다는 점이 핵심 경쟁 우위 요인
- 에이전트 메모리 레이어로서의 MDB 채택이 새롭게 부상하는 수요 패턴이며, 이 영역에서의 확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
- Atlas는 사업 규모 확대에 따라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개별 고객코호트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지고 있음
- EA 하반기 Flat 가이드언스의 주요 원인은 FY26 하반기의 강한 역기저 효과 때문
- FY27년 가이드언스 상단 기준, Rule of 40 달성(매출 성장률 ~20% + 영업이익률 ~20%) 전망

글로벌 전력기기/에너지

엔비디아가 그리는 새로운 배전 방식, 800V DC

- AI의 등장은 데이터센터 배전 설계에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와
-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압과 전력 변환 모두 효율성을 개선해야
- 킬로와트(kW) 수준의 전력을 요구하는 랙에서는 AC 배전 방식에도 무리가 없었지만 메가와트(MW) 규모의 랙에는 전압을 높이고 AC/DC 변환 단계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
- 2027년 엔비디아 랙 설계가 현재의 Oberon에서 Kyber 스타일로 변하며 800V DC로의 전환이 본격화될 예정
- 기존 415V AC 배전에서는 UPS 등을 거치며 AC-DC-AC-DC 등 변화가 빈번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각 단계에서 전력 손실이 발생
- 800V DC는 고압의 AC가 정류기/SST를 통과하며 감압과 DC 변환이 한번에 이루어짐
- 에너지 손실을 줄일 수 있어 token per watt의 극대화가 가능하며 컴팩트한 공간 구성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공간 효율성은 높아짐

AI/플랫폼

엔비디아(NVDA.US): 대만향으로 연간 1,500억 달러 지출 예정

-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대만을 “AI 혁명의 중심지”로 지칭하며, 엔비디아의 대만 내 연간 지출이 4~5년 전 100억~150억 달러에서 현재 1,000억 달러 수준으로 커졌고 향후 1,50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언급

아마존(AMZN.US): Alexa 쇼핑 에이전트를 AWS 상품화

- 아마존은 자사 쇼핑 AI인 Alexa for Shopping의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외부 리테일러에게 제공하는 AWS Agentic Shopping Assistant를 공개. Kate Spade가 첫 적용 사례로 AI Gift Concierge를 구축

메타(META.US): 월 7.99달러 AI 구독 테스트

- 메타는 Meta AI의 유료 구독형 상품을 테스트하며 가장 낮은 요금제인 Meta One Plus를 월 7.99달러, 상위 요금제인 Meta One Premium을 월 19.99달러로 설정. 유료 구독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순 챗봇 사용 확대가 아니라, Meta AI로 이미지 생성과 비디오 생성을 더 많이 하고, Thinking Mode(복잡한 질문을 더 깊게 추론하는 모드) 사용 한도를 늘리며, 더 복잡한 요청을 처리할 수 있음

마이크론(MU.US): 시총 1조 달러 클럽 진입

- UBS가 목표주가를 535달러에서 1,625달러로 대폭 상향. UBS는 AI 수요 확대에 따른 장기 공급계약, 일부 고정가격 계약 가능성, 메모리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구체화되면서 마이크론에 더 정상화된 밸류에이션을 적용할 수 있다고 평가. 해당 리포트가 나온 당일 마이크론 주가는 약 19% 급등 마감

서비스나우(NOW.US): AI·보안 M&A 비용을 채권으로 조달

- 서비스나우는 인수 자금과 관련해 약 4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등급 채권 발행을 추진. 이번 조달은 아르미스 등 대형 AI·사이버보안 인수 이후 재무구조를 장기채로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

델(DELL.US): 97억달러 국방부 소프트웨어 통합 계약

- Dell Federal Systems는 미 국방부·정보기관·해안경비대가 Microsoft 365, 클라우드 구독, 온프레미스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어슈어런스(업데이트·지원 권리)를 단일 계약으로 조달할 수 있게 하는 5년 96.9억달러 규모의 확정가 포괄구매계약(BPA, 반복 구매용 정부 조달계약)을 수주

우주/로봇

스페이스X(비상장): FAA 조사 명령으로 Starship V3 개발 일정 리스크 부각

- FAA는 2026년 5월 22일 Starship Flight 12 테스트에서 Super Heavy 부스터가 단 분리 후 멕시코만으로 복귀하던 중 이상을 일으킨 것을 ‘비행 이상 사고(mishap)’로 판단하고, SpaceX에 원인 조사와 시정조치 제출을 명령

NASA, 달 기지 로드맵 공개

- NASA는 달 남극에 장기 체류가 가능한 Moon Base를 구축하기 위해 2026~2029년 1단계에서 로봇 탐사와 무인 착륙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2029년 이후에는 거주 모듈·통신·전력·이동수단 등 반영구 인프라를 조립하는 단계로 넘어가겠다는 계획을 공개

스노우플레이크

| | |
|---|-------------------------------------|
| 상장 국가 | 최근 추가 추이 |
| 미국 | (USD) |
| 산업 | 300 |
| 소프트웨어 | 200 |
| 시가총액(십억달러) | 100 |
| 82 | 0 |
| | 25.5 25.7 25.9 25.11 26.1 26.3 26.5 |
| 스노우플레이크 (SNOW.US): AI 제품의 매출 기여 시작, 큰 폭의 Beat & Raise 이유 | |

1QFY27 Review: 매출 성장 가속화 뚜렷, 가이드던스도 예상보다 빠르게 상향 조정

- FY27년 1분기 실적은 스노우플레이크에게 시가 위협이 아니라 강력한 성장 동력임을 입증. 제품 매출은 13.3억 달러로 34% YoY 성장, 가이드던스를 7ppt 상회했으며 이는 기존 상회폭 추이를 크게 뛰어넘는 서프라이즈
- 조정 OPM 12%(컨센 10%), 조정 EPS는 0.39 달러로 컨센을 22% 상회. FY27년 제품 매출 성장 가이드던스를 기존 27%에서 31%로 4ppt 상향조정. 통상적으로 1분기에 올린 조정폭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
- 고무적인 점은 1분기 Beat, 가이드던스 상향 조정의 가장 큰 요인이 AI 제품의 매출 기여. AI 코딩 에이전트 CoCo(Cortex Code)가 2월 초 GA 이후 1개 분기 만에 7,100개 계정 수를 기록했고, CoCo 사용 고객군의 기존 플랫폼 사용량 증가로 이어지면서 플라이휠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AI 위협이 아니라 데이터 플랫폼 활용도를 더욱 높이는 강력한 성장 동력

- 1) 1분기 제품 매출 성장 34%는 이전 2개분기 29%, 30%에서 뚜렷한 가속화. 비수기인 1분기에 전분기대비 매출 금액 증가분 역대 최대치 기록한 것은 시가 데이터 플랫폼 수요를 구조적으로 높이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2) 순증 고객 616개(+38%)로 사상 최대 순증 기록, NRR 126%로 반등하며 기존 고객의 확장 모멘텀이 확인
- 3) 마진이 낮은 AI 매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FY27년 GPM 가이드던스 75% 유지, 조정 OPM 가이드던스는 13.5%(+1ppt)로 올림. AI 제품 대규모 고객 확보 전략이 마진을 방어하고 있으며 AWS 계약이 비용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
- 스노우플레이크 AI 제품은 일반 비즈니스 유저 대상의 Snowflake Intelligence와 개발자 대상의 CoCo가 양대 축. 시장의 우려와 달리 시가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3가지 요인으로 해석. 1) AI가 고객 데이터 활용 가치를 높여 데이터 플랫폼 활용도 상승, 2) 스노우 플레이크 AI 제품 본격 가동 시작, 3) AI 제품의 뛰어난 성능 효과로 독립적인 매출원으로 자리잡으면서 동시에 기존 플랫폼 사용까지 추가로 견인하고 있기 때문

데이터 플랫폼 사업자는 구조적 AI 수혜자

- 2분기 가이드던스는 제품 매출 성장 30% (컨센 26%), 조정 OPM 12.5% (컨센 11.7%) 제시. 스노우플레이크는 AWS와 5년 60억 달러 규모의 신규 계약을 체결했으며 Graviton 컴퓨팅 및 AI 서비스 활용과 공동 GTM 투자가 포함. AWS 플랫폼 내의 누적 매출 70억 달러 돌파는 스노우플레이크 플랫폼 위에서 실행되는 데이터 워크로드에 대한 수요 증가를 입증하는 수시로 판단됨
- 소프트웨어 각 세부 분야별로 AI 영향이 다르며, 데이터 플랫폼의 경우 시가 선순환 효과를 만드는 수혜자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음. 보수적인 가이드던스 추정 원칙을 따르면서도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가이드던스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구조적 AI 효과를 입증하는 것으로 판단됨
- 향후 CoCo 채택 확대, Snowflake Intelligence 상용화 진전에 따라 매 분기 실적에서 Beat & Raise 패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스노우플레이크가 AI 수혜주임을 더욱 확고하게 입증해 나갈 것으로 판단

몽고DB

상장 국가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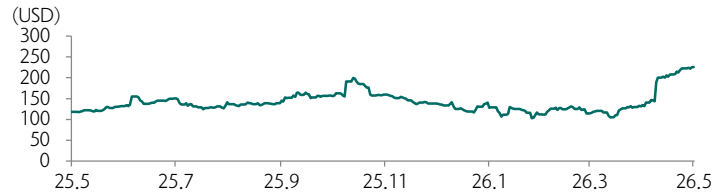
산업

소프트웨어

시가총액(십억달러)

26

최근 주가 추이



몽고DB(MDB.US): AI 에이전트 메모리 플랫폼으로 전환

- MDB는 1분기 실적과 2분기 가이드언스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 실적 발표 직후 시간외거래 초반 주가가 급등했으나 컨콜에서 CEO가 “현재 분기 Atlas 매출 가이드언스 대비 큰 폭의 서프라이즈는 기대하지 말라”는 코멘트 이후 초반 상승분 반납.
- 계절성이 큰 사업인 EA 사업도 2분기 가이드언스를 +20%로 강력한 성장을 전망했으나 FY27년 연간 성장은 ‘mid-single-digit’ 수준을 전망, 하반기 EA 성장 둔화를 시사한 점도 초반 과열 분위기를 식혔던 요인
- 실적 발표 전날 SNOW 호실적 달성으로 MDB 주가도 급등하며 실적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된 측면도 있음
- 이번 실적을 통해서 확인된 점은 소프트웨어 섹터 세부 분야 중에서 데이터 인프라 서브섹터는 AI가 위협이 아니라 중요한 성장 동력. MDB는 EA 사업 영향으로 기저/역기저 효과 영향이 크고 계절성이 높으나 Atlas 확대에 따라 예측 가능성이 크게 개선.

FY27 1분기(FQ1 2027) 주요 지표

- 1분기 매출 6.88억 달러, YoY +25%로 컨센서스 약 3.6% 상회. 조정 EPS 1.32달러 (예상치 1.18달러)로 약 12% 상회
- Atlas 매출 YoY +29.4%, 분기 사상 최대 1.17억 달러 순증, 런레이트 20억 달러 도달. 4개 분기 연속 YoY +29% 이상 기록. Atlas 비중 전체 매출의 약 75% (전년 동기 72%)
- 달러 기준 NRR 121%로 전년 동기 119% 대비 +2%p
- RPO 14.6억 달러로 QoQ 거의 보합, YoY +88% (단기 RPO +69%)
- 2분기 매출 가이드언스 7.29~7.34억 달러 (예상치 6.99억 달러), 조정 EPS 1.58~1.61달러 (예상치 1.28 달러). FY27 매출 가이드언스 29.2~29.6억 달러로 상향 (예상치 29.0억 달러), 조정 EPS 5.95~6.14달러 (예상치 5.84 달러), Atlas 연간 성장률 23~25%로 200bp 상향

주목할 코멘트

- 에이전틱 워크로드는 초기 단계이나, 프로덕션 배포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 금융·헬스케어 기업에서 확신을 얻고 있음
- MDB의 유연한 스키마와 LLM의 언어 구조가 일치한다는 점이 핵심 경쟁 우위 요인
- 에이전트 메모리 레이어로서의 MDB 채택이 새롭게 부상하는 수요 패턴이며, 이 영역에서의 확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
- Atlas는 사업 규모 확대에 따라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개별 고객·코호트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지고 있음
- EA 하반기 Flat 가이드언스의 주요 원인은 FY26 하반기의 강한 역기저 효과 때문
- FY27년 가이드언스 상단 기준, Rule of 40 달성(매출 성장률 ~20% + 영업이익률 ~20%) 전망

M&A를 통한 연방 정부향 영업력 강화 및 인재 영입

- Clarity Business Solutions 인수 발표. 2021년부터 파트너였던 기업으로 미 정부 고급 기밀 워크로드 전문 서비스.
- Clarity 인수는 연방 버티컬 서비스 역량을 내재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재무 영향은 가이드언스에 이미 반영 완료
- 기존 소수 지분 보유 상태에서 완전 인수로 전환

글로벌 전력기기/에너지

네이티브 DC(직류) 데이터센터의 등장

엔비디아가 그리는 새로운 배전 방식, 800V DC

- AI의 등장은 데이터센터 배전 설계에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와
-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압과 전력 변환 모두 효율성을 개선해야
- 킬로와트(kW) 수준의 전력을 요구하는 랙에서는 AC 배전 방식에도 무리가 없었지만 메가와트(MW) 규모의 랙에는 전압을 높이고 AC/DC 변환 단계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
- 2027년 엔비디아 랙 설계가 현재의 Oberon에서 Kyber 스타일로 변하며 800V DC로의 전환이 본격화될 예정
- 기존 415V AC 배전에서는 UPS 등을 거치며 AC-DC-AC-DC 등 변화가 빈번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각 단계에서 전력 손실이 발생
- 800V DC는 고압의 AC가 정류기/SST를 통과하며 감압과 DC 변환이 한번에 이루어짐
- 에너지 손실을 줄일 수 있어 token per watt의 극대화가 가능하며 컴팩트한 공간 구성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공간 효율성은 높아짐

전력시장은 데이터센터에 요금을 전가(Bring Your Own Power)

- '25년 12월 공개된 PJM의 27/28 BRA(용량경매)에서 처음으로 필수 예비력을 채우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
-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공급을 계속 앞지르고 있음을 증명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RBP가 처음 제안
- PJM의 개입 없이 발전사와 데이터센터간의 양자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
- 핵심은 데이터센터 등 대형 부하로 인한 전력 요금 상승을 일반 소비자에 넘기지 않고 직접 부담하게 하는 것
- ERCOT(텍사스) 상원법안 6호에서도 유사한 사례

터빈과 디젤발전기를 완전히 대체하는 온사이트

- 전력 시장의 BYOP 정책과 더불어 납기의 중요성이 증가하며 온사이트가 주요 발전원으로 자리
- SOFC는 이제 터빈과 디젤발전기를 100% 대체하며 백업발전기를 넘어서
- 게다가 SOFC는 태양광과 마찬가지로 DC 전기를 생산해 800V DC와도 연계 가능성이 높아

Top-picks: 이턴코퍼레이션(ETN), 콘스텔레이션에너지(CEG), 지멘스(SIE)

- 새로운 배전 시스템의 등장은 기존 업체에게 기회이자 동시에 위기가 될 것
- 태양광 인버터 업체의 SST 신규 제품 출시 등 새로운 시장에는 새로운 진입자가 등장하기 때문
- 다만 초고밀도 AI 랙의 등장 앞에 800V DC라는 정해진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프리미엄은 합리적
- 이턴코퍼레이션(ETN)은 적극적인 M&A를 통해 800V DC 익스포저가 가장 높아. SST 관련 약 10개의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며 800V DC는 올해 하반기부터 수주를 시작해 '27년 말부터 출하될 예정
- 콘스텔레이션에너지(CEG)는 2026년 9월부터 시작될 PJM의 RBP 영자계약에서 원자력과 천연가스 미국 1위의 IPP 강점이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아
- 지멘스(SIE)는 중국 시장의 전반적인 회복세와 800V DC 스위칭기술, 디지털 트윈으로 다방면의 수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AI/플랫폼

엔비디아(NVDA.US): 대만향으로 연간 1,500억 달러 지출 예정

-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대만을 “AI 혁명의 중심지”로 지칭하며, 엔비디아의 대만 내 연간 지출이 4~5년 전 100억~150억 달러에서 현재 1,000억 달러 수준으로 커졌고 향후 1,50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언급
- 또한 북부 타이베이에 신규 대만 본사 ‘Constellation’을 건설해 2030년 가동, 4,000명 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음

아마존(AMZN.US): Alexa 쇼핑 에이전트를 AWS 상품화

- 아마존은 자사 쇼핑 AI인 Alexa for Shopping의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외부 리테일러에게 제공하는 AWS Agentic Shopping Assistant를 공개. Kate Spade가 첫 적용 사례로 AI Gift Concierge를 구축
- 아마존이 단순히 자사 이커머스 전환율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검색·추천·상품 비교·구매 의사결정까지 관여하는 에이전틱 커머스(사용자 대신 탐색·추천·행동을 수행하는 AI 쇼핑 방식)를 AWS의 B2B 솔루션으로 패키징하기 시작

메타(META.US): 월 7.99달러 AI 구독 테스트

- 메타는 Meta AI의 유료 구독형 상품을 테스트하며 가장 낮은 요금제인 Meta One Plus를 월 7.99달러, 상위 요금제인 Meta One Premium을 월 19.99달러로 설정. 유료 구독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순 챗봇 사용 확대가 아니라, Meta AI로 이미지 생성과 비디오 생성을 더 많이 하고, Thinking Mode(복잡한 질문을 더 깊게 추론하는 모드) 사용 한도를 늘리며, 더 복잡한 요청을 처리할 수 있음
- 초기 테스트 국가는 싱가포르·과테말라·볼리비아로 알려졌으며, 동시에 Facebook Plus·Instagram Plus·WhatsApp Plus 같은 앱별 유료 기능도 확대해 광고 외 매출 기반을 넓히려 하고 있음

마이크론(MU.US): 시총 1조 달러 클럽 진입

- UBS가 목표주가를 535달러에서 1,625달러로 대폭 상향. UBS는 AI 수요 확대에 따른 장기 공급계약, 일부 고정가격 계약 가능성, 메모리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구체화되면서 마이크론에 더 정상화된 밸류에이션을 적용할 수 있다고 평가. 해당 리포트가 나온 당일 마이크론 주가는 약 19% 급등 마감

델(DELL.US): 97억달러 국방부 소프트웨어 통합 계약

- Dell Federal Systems는 미 국방부·정보기관·해안경비대가 Microsoft 365, 클라우드 구독, 온프레미스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어슈어런스(업데이트·지원 권리)를 단일 계약으로 조달할 수 있게 하는 5년 96.9억달러 규모의 확정가 포괄구매계약(BPA, 반복 구매용 정부 조달계약)을 수주
- 델이 소프트웨어 자체를 만드는 딜이라기보다, 국방부 전반에 흩어져 있던 마이크로소프트 라이선스 구매를 하나의 조달 창구로 묶는 프라임 계약자 역할을 확보
- 국방부는 기존 부서별 중복 구매를 줄이고 전체 구매력을 활용해 연간 약 4.22억달러 비용 절감을 기대

우주/로봇

스페이스X(비상장): FAA 조사 명령으로 Starship V3 개발 일정 리스크 부각

- FAA는 2026년 5월 22일 Starship Flight 12 테스트에서 Super Heavy 부스터가 단분리 후 멕시코만으로 복귀하던 중 이상을 일으킨 것을 ‘비행 이상 사고(mishap)’로 판단하고, SpaceX에 원인 조사와 시정조치 제출을 명령
- 공개된 내용상 인명 피해나 공공 재산 피해는 없었지만, FAA가 최종 보고서와 개선 조치를 승인하기 전까지 추가 Starship 시험비행은 중단

NASA, 달 기지 로드맵 공개

- NASA는 달 남극에 장기 체류가 가능한 Moon Base를 구축하기 위해 2026~2029년 1단계에서 로봇 탐사와 무인 착륙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2029년 이후에는 거주 모듈·통신·전력·이동수단 등 반영구 인프라를 조립하는 단계로 넘어가겠다는 계획을 공개
- NASA 공식 설명상 이번 전략은 단순한 “달 착륙 이벤트”가 아니라 산업·국제 파트너와 함께 달 표면 운영 체계를 만드는 프로젝트. Blue Origin의 달 착륙선, Astrolab-Lunar Outpost의 달 지형 차량, Firefly Aerospace의 달 드론 운송 등이 초기 핵심 축으로 포함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 김시현)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5월 29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 김시현)는 2026년 5월 29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